

2021
07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방문 정책간담회

03 KAMT NEWS

중앙회 및 시도회, 분과학회 소식

09 SPECIAL

임상병리사 활약 분야·국가 혁신 성장 핵심 인력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10 INTERVIEW

초대석 임상병리사 출신 김영길 문경시 부시장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전담배치 법제화 심장초음파 생리학적 기능검사 임상병리사 주체 협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의 정책간담회서 건의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으로 임상병리사 배치를 법제화 해 줄 것과, 심장초음파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력으로 임상병리사를 명확히 해 주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6월 4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방문해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인호 협회장을 비롯해 강복만 서울시회장, 김철 공보이사, 조미숙 사무국장, 협회 홍보대사 윤희정 아나운서가 자리를 같이했다.

윤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인력 배치 법제화, △생리학적 기능검사로서 심초음파검사에 대한 임상병리사 영역 명확화 △코로나19 관련 임상병리사 역할과 처우 개선 △임상병리사 명칭 개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협회장은 “현행 의료법 및 동시행규칙 46조에 따르면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및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 해당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수가가산 적용)가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장 협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코로나19는 물론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국가적인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검사 업무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 실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시하며 임

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필수인력 배치와 보상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증명되었듯이 검체 채취부터 진단검사 결과도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들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에서도 검사 전문가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실 운영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에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날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의 지원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병의원 대상 조사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근무 인력 현황만 봐도 현저히 많은 수의 임상병리사들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54개 대학 임상병리학과에서도 심장초음파에 대한 강의와 실기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교재도 개발하여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임상병리사가 아니라는 일부 학회의 주장은 명백한 업권 침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2012년 실시한 임상병리사 직무분석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임상병리사의 직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임상생리학 분야 총 30문항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문항씩을 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3월 전국병원 조사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업무에 임상병리사가 226명, 방사선사 48명, 간호사 17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복만 서울시회장은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와 관련해 보건소, 병의원 등 의료 현장에서 확진 검사를 수행함은 물론 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 실무자로서 헌신적으로 묵묵히 활약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전국의 임상병리사들이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보람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달라고 전했다.

김철 공보이사는 임상병리사 명칭에 대해 “1963년 임상병리사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임상병리사의 국·영문 표기는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달리 직업 명칭에서 ‘정체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법령, 직업분류, 문헌, 인용, 국민 인지도 등에서 오류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4차 산업혁명 및 의생명과학 기술 개발로 인해 질병 검사 및 정도관리업무, 교육, 연구, 학술 면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책임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에 대해 김 위원장도 관심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임상병리사 직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한 논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462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Shaping the future of healthcare, Siemens Healthineers
-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 LG화학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ELVATE your performance. ADVANCE patient care. 한국백크만쿨터주식회사
- Bright Technology, right decision 브라이텍
- 감염병 체외진단 퍼스트무버 (주)코젠바이오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 UNI-VERSITY를 넘어 NEW-VERSITY로 신한대학교
- Be Happy in Life with 봄메디칼
- 응고검사의 믿음직한 길라잡이. 스타고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자 이호성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19일 출범! 54개 대학 교육 수준 향상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부 인증기관 허가 추진 중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임평원)이 낱이 발전하는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임상 병리사를 양성, 배출한다

는 목표로 6월 19일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평원은 현재 54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임상병리학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임상병리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임상병리학과 교육의 질과 신뢰도를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임평원이 진행하는 평가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과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영역, 교수영역,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등이 국가, 사회, 보건전문직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이다.

임평원은 △시범평가를 통한 인증기준 및 평가 준거 고도화 △인증 평가 핵심 역량 지표검토 연구 △학제통합 위한 공통교과 도출을 위한 기반구축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공정·타당성이 담보된 임상병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사업, 임상병리사 면허제도 발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등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54개 대학 임상병리학과 교육 수준의 향상 및 대외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교육부 인증기관 허가를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장인호 이사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충환 초대 원장(마산대), 황석연 단장(대전대) 등 임평원 임원진,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안승주 회장 및 임원진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집행부 임원, 시도회·분과학회장들이 참석했다.

임평원 개원식 참석자 모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진단검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상병리사의 역량제고는 물

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임평원에 당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석연 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원식에서는 주요 내빈 소개에 이어 장인호 이사장 환영사, 안승주 교수협의회 회장 축사, 김충환 원장 개원 인사가 있었다. 이어 김충환 원장, 권창오 조정위원회 위원장(김천대), 권영일 재심위원회 위원장(신한대)에 대한 임명장 수여, 황석연 단장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경과 및 비전 보고, 현판식 및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장인호 이사장은 “교육은 모든 산업 부흥과 발전의 기본이다. 임상병리사 양성에 있어서는 전국 54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상병리학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개원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며, “임평원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이 힘을 합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활약하며 국민 보건 증진에 앞장서는 일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주 회장은 “임평원 개원은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우수한 임상병리사 배출을 통해 우리 직군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역량을 갖춘 임상병리사 배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 인프라 구축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평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도 발맞추어 함께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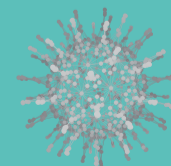
김충환 원장은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의 대학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의 후배를 양성하는 임상병리학과도 예외는 아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가장 적극적인 해법으로 지혜를 모아 선택한 장치가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도입”이라며, “초대 평가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전국 임상병리학과 교수님들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열정적인 후원이 큰 힘이 되어 임상병리학과와 임상병리사 모두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검사실을 화학 바꾸다



지난 30여년간 LG화학은
국내 진단검사의학과와 검사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앙회소식

경주에서 행정실무워크숍·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성료 종합학술대회 성공 개최 의지 다져

2021년도 행정실무워크숍이 지난 5월 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27대 집행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인 의미가 컸다. 중앙회와 지회 및 분과학회 임직원이 모여 27대 집행부의 결의를 다지고,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된 교육 내용은 △재무 교육(하성일 재무이사), △정관 및 제규정 교육(김동현 법제이사), △행정지도감사 교육(신동호 중앙회 감사), △보수교육 업무지침 교육(황삼노 교육이사), △협회 전자결재시스템 관련 교육(권민석 정통이사)이 있었다.

또한 중앙회와 각 시도회, 분과학회 회장단, 임직원을 소개하며 인사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열린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오는 10월 16일(토)~17일(일) 양일간 제59회 종합학술대회가 열릴 장소라,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의 의미도 가졌다.

이에 행정실무워크숍에 앞서서 같은 장소에서 제59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안) 소개, △경북도회 조직위원회 소개, △종합학술대회 업무분장(안) 초안 공유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후에는 대회가 열릴 센터를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대회가 열릴 현장 공간을 살펴보고 대회 진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중앙회와 시도회 및 분과학회 임직원들은 행정실무워크숍에서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장인호 협회장은 “신라의 숨결이 깃든 천년고도 경주에서 행정실무워크숍을 열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종합학술대회를 열 장소이기도 한데,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곳을 선택한 듯하다. 경북도회가 큰 수고를 해 주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워크숍이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리고 모인 자리다. 앞으로 중앙회와 시도회, 분과학회를 끌어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교육 성과를 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1.06.01 ~ 06.30

- ▶ 6월 03일 보험위원회 회의/역사편찬위원회 회의
- ▶ 6월 04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실 방문 정책 간담회/편집위원회 회의
- ▶ 6월 05일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시험
- ▶ 6월 10일 제463차 상임이사회
- ▶ 6월 12일 중소병원대표위원 워크숍/제6차 감염관리위원회 회의
- ▶ 6월 17일 제3차 법제위원회 회의
- ▶ 6월 19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개원식/공단강사워크숍/학술발전위원회 회의
- ▶ 6월 22일 중소병원위원회 회의
- ▶ 6월 25일 60년사 역사편찬 업체 간담회/웹세미나 개발 관련 회의
- ▶ 6월 26일 제2차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제7차 감염관리위원회 회의
- ▶ 6월 29일 전문임상병리사 행정실무 회의
- ▶ 6월 30일 제35회 IFBLS 관련 화상 회의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1.06.01 ~ 06.30

- ▶ 6월 0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간담회
- ▶ 6월 04일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실 방문
- ▶ 6월 09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투병 회원(광주광역시회) 위문
- ▶ 6월 10일 제463차 상임이사회
- ▶ 6월 15일 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
- ▶ 6월 17일 회장단 회의 진행
- ▶ 6월 18일 협회관 재건축 관련 업체 면담
- ▶ 6월 19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개원식 참석
- ▶ 6월 23일 사무국 직원(운영지원팀) 면접
- ▶ 6월 24일 국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및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담회 참석
- ▶ 6월 25일 60년사 역사편찬 업체 간담회 참석
- ▶ 6월 26일 제2차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 ▶ 6월 27일 의기총 단체장 회의 참석
- ▶ 6월 30일 제35회 IFBLS 관련 화상 회의 참석



중앙회소식

장인호 협회장, 서정훈 광주광역시 회장과 백신 부작용 투병 회원 위문 여야 의원들 예방접종 피해보상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앞다퉀 제출



장인호 협회장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회 서정훈 회장, 정찬 재미이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입원 치료중인 회원을 문병하고 쾌유를 빌며 위로했다.

위문에서는 장 협회장의 격려금과 서 광주시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하고, 정부의 진료비 지원

및 회원들의 응원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회원은 지난 5월 28일 AZ 접종 후 다음날부터 오한과 구토, 설사 증상이 있었으며, 6월 5일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자택 인근 병원

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장 협회장 위문 때는 다행히 보행도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된 상태였다.

장 협회장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검사 임무를 수행하느라 헌신하는 임상병리사 회원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기를 염원했다. 또한 서 광주시회장을 비롯해 뜨거운 동료애로 쾌유를 기원하는 광주광역시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6월 8일 코로나 백신 접종과 피해 사실 인과성과는 관계없이 질병 발생 시 진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요건 완화 및 우선지원 관련 감염병법 개정안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김미애·서정숙·성일종·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의기총 회장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담회 진행 의료기사법 개정, 의료기사 처우 개선 관련 야당 협조 요청



장인호 협회장은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지난 6월 24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

사법 개정, 의료기사 처우 개선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본관 원내대표의원실에서 실시한 이번 간담회에는 장 협회장을 비롯해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이도왕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엄동욱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

이사가 참석했다.

의기총 회장단은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거듭 강조하며, 법안 발의 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아쉽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의료기사가 전문인으로서 큰 성장을 했고, 임상에서 처방에 의한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도보다는 처방 또는 의뢰가 현실에 맞는 표현”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 보건복지위 간사는 의료기사의 법안발의 의의를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울산광역시회장은 임상병리사의 업무, 병원 근무 환경에 있어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대우는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헌혈캠페인 같은 뜻깊은 행사는 지역 국회의 원도 홍보하고 참석해 주길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써 준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뜻을 전했다.

Stago
Diagnostics is in our blood.

STA Workcell Max

Stago, 혈액응고 전자동화장비 출시!



최고의 혈액응고 전자동화 장비

기본적인 메뉴얼 작업도 모두 자동으로 진행!
병목현상없이 STAT 샘플 수용가능

- ☑ Centrifuge → Input → Transfer → Output 까지 전자동시스템
- ☑ 추가적인 업무 감소로 업무 효율도 상승
- ☑ TLA 연결시 발생하는 혈액응고 검사 단점 (검체관리, 병목현상 등)을 보완
- ☑ 모든 프로세스에서 샘플 추적이 가능

<http://www.ssmedipia.com>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SS Medipia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SS MEDIPIA
주 에스에스메디피아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13, 1층
(역삼동 삼화빌딩)

☉ 홈페이지: mail@ssmedipia.com

☉ Tel: 02-552-1951

☉ Fax: 02-552-1972

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

지난 6월 15일 노회범 고문 변호사 위촉 및 계약이 진행되었다.
 전 고문 변호사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노 고문 변호사는 중앙회 회무, 의료 관계법령 및 법정 분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다.
 노 고문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공보관(대변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자문 변호사,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1962~2022'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0년사 편찬 착수 60년 조명, 100년 향한 비전 제시 목표



반세기를 훌쩍 넘어 내년이면 회갑을 맞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창립 60년사 편찬의 대역사에 돌입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60년사 편찬이 국민 건강 보건 지킴이 임상병리사와 함께한 영광과 발전의 60년


을 담담하게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100년에 대한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현대 의학 발달의 견인차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각오를 다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추진 의의를 밝혔다.
 협회는 지난 6월 3일 저녁 8시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역사편찬위원회를 열어 60년사 역사편찬 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역사편찬 스타트 라인을 끊었다. 설명회에는 편찬위(위원장 유필상 부회장, 간사 지우현 이사) 위원과 회장단 및 관련 임원진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하여 이른바 K-방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전국의 임상병리인들은 대망의 60년사 편찬 준비와 함께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역량을 강화,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각오다.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코젠바이오텍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델타 플러스 진단키트

- ✓ WHO·CDC 지정 우려·관심 변이 스크리닝
- ✓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식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주)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C동 1110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중앙회소식

**불법의료·과도한 수탁기관 할인을 문제제기
제1차 전국 16개시도 중소병원대표위원회 워크숍서 제안**



여러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들이 검사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행정 업무 수행을 병행하느라 애쓰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12일 대전 유성 호텔에서 중소병원발전위원회(위원장 유필상 부회장, 간사 최병호 이사) 주최 전국 16개시도 중소병원 대표위원 워크숍이 열려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뜻을 모

았다.

워크숍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원 행정부회장, 김대중 공보부회장, 김형락 기획부회장과 지우현·제갈석 자문위원, 각 시도 대표위원들이 참석했다.

대표위원 위촉장은 장인호 협회장을 대신하여 김상원 행정부회장이 수여했다.

열띤 논의 끝에 '불법의료행위 적발 포상 건 요청(복지부 주관)'을 비롯해 △과도한 (70~75% 까지) 수탁기관 할인을 문제와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협의회에 수탁 기관 덤핑 문제 적극 대처 요청 △수탁기관서 임상병리사 채용, 협약 병원 파견 근무 (아웃소싱) △불법의료행위 협회 홈페이지 신고 △필수 인력 산정 제도적 뒷받침 등이 제안됐다.

이 밖에도 임상병리사 원내 검사 시 수가 인상과 질 가산료 산정, 체액 검사와 U/A(소변검사) 마이크로 검사 실무 교육, 전문임상병리사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앞서 '불법의료행위 복지부 유권해석(조정숙 부간사)'과 '검진기관 교육사업 소개(국민건강보험공단 하재욱 팀장)' 등의 발표가 있었다.

**검진기관 전문교육
'공단 전문강사 워크숍'**

중소병원발전위원회(위원장 유필상 부회장, 간사 최병호 이사)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 신규 전문강사 워크숍을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협회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검진기관 임상병리사 전문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검진기관 전문강사 교육 육성에 취지를 두고 실시된 워크숍에선 △검진 구조영역, 검사과정 및 검사후 과정(이재숙 강사) △공단강사의 역할(최병호 이사) 강의가 있었다.

해마다 지속되는 교육과정으로 전국 중소병원의 질 관리가 평가분석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내외적인 평가이다.

2021년 공단강사팀 운영에 관한 계획에 따라 중소병원발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전국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공유 및 강의를 할 예정이다.



[Abnormal Result Profile]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LDL Subfraction을 확인하지 않으면,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해결책

Lipoprint® LDL Subfraction 검사

Lipoprint® 는 지단백질의 모든 하위 분획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결과 항목]

- VLDL
- LDL Particle Size
- IDL 1~3
- Total LDL Cholesterol
- Large LDL : LDL 1, 2
- Total Cholesterol
- Small dense LDL : LDL 3~7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11길 11, 현대지식산업센터A동 3층
Tel. 02-477-5916 Fax. 02-477-5917

서울특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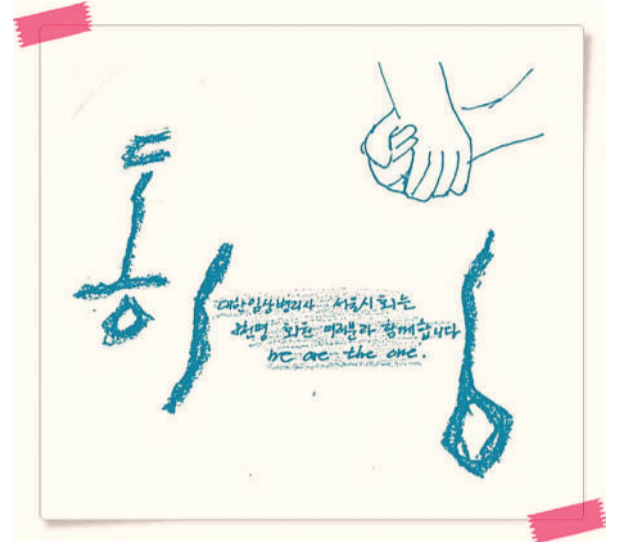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 진행
코로나 위기 최전선에 선 임상병리사 헌신·환자 사랑 정신 전파

서울특별시회(회장 강복만)는 지난 6월 1일부터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혈액 부족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임상병리사'라는 사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는 6월 20일 현재 69명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임상병리사의 환자 사랑 정신'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헌혈 행사를 독려하고자 행사에 참여하고 서울시회 홈페이지 행사게시판에 헌혈 인증 사진을 남긴 정회원 1,0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회 강복만 회장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서 의료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 헌혈에 동참해 준 서울특별시회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방역 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헌혈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회

'건강보험청구관리사' 7주 교육과정 개설
직무 효율성 향상 기대, 지속적 교육 계획

광주광역시회(회장 서정훈)는 병의원 근무 회원을 주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관리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차 20명을 대상으로 6월 12일 시작한 건강보험청구관리사 교육은 요양급여 기초이론·산정지침·심사청구, 진료비심사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총 7주에 걸쳐 116시간 동안 이론, 실기를 겸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광주시회는 본 프로그램이 사무장 및 진료비심사과 업무 수행 회원들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교육 후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2차 교육을 준비할 계획이다.



경북도회

대구경북혈액원과 '헌혈 통한 생명나눔' 협약
코로나 전선 회원에 '간식 키트·학술대회 홍보물' 전달



경북도회(회장 조대현)는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혈액원(원장 허부자)과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북도회는 6월 16일 오후 3시 적십자 대구경북혈액원에서 MOU를 체결하고, 11월말까지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포항성모병원 단체헌혈과 구미헌혈의 집 등 회원들을 출발점으로 소중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 경북도회 홈페이지에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캠페인에서 응집된 회원들의 역량을 발판으로 10월 16~17일 경주에서 열리는 59차 종합학술대회 성공 개최를 이끌기로 다짐했다.

더불어 경북도회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파견 회원 위로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

나 검사와 검체 채취로 최전선에서 애쓰는 회원들을 격려,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간식 키트, 종합학술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홍보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로, 6월 8일 경산, 경주, 포항 지역 병원, 11일엔 구미, 문경, 안동 지역 선별진료소 파견 회원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북도회 관계자는 "현장의 선후배 회원들과 회장 이하 임원진들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특히 힘든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회원들의 따뜻한 정을 보면서 임원진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경북도회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다졌다"며, "제59회 종합학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임원진과 분회장들이 똘똘 뭉쳐 경북도회의 단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상미생물검사학회

제3대 평의원 회의 온라인 진행

임상미생물검사학회(회장 황유연) 14대 집행부는 지난 5월 31일 제3대 평의원 회의를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였다.

의결권이 성원된 본 회의에서는 육근돌 상임 평의원(대전보건대), 최병후 상임 평의원(서울아산병원)이 부학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각 위원회별 사업-예산안이 인준되었다.

학회는 최신 미생물검사 공유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국내 미생물검사실 실무책임자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회 홍보와 회원 동정, 미생물검사의 최신지견 소개를 담은 소식지를 발간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많은 회원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멈춘 미생물 전문임상병리사 수련 교육 실시 재개를 요청해,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논의, 확정했다. 그리고 학회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용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학회는 국내·외 백신 접종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새출발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들과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계획하고, 개인 학술 역량 강화와 화합을 위해 힘을 쓸 것을 재차 다짐하였다.



임상화학검사학회

실시간 웹세미나 보수교육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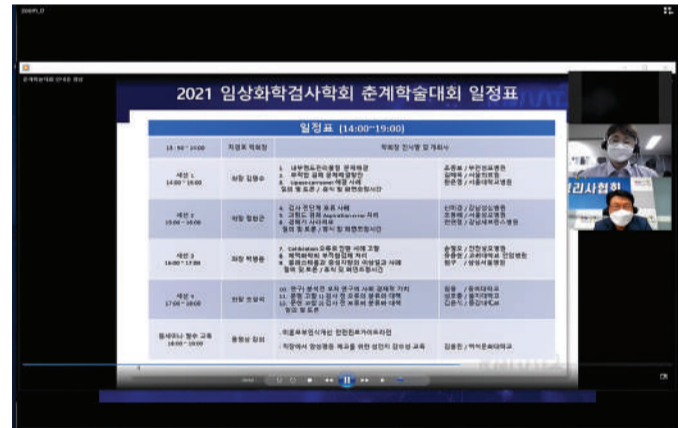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학회장 차경호)는 지난 6월 19일 줌을 사용한 웹세미나 보수교육으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실시간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협회 최초로 줌 실시간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인호 협회장이 현장에 방문해 격려하고, 중앙회 교육부, 정보통신부에서 출결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였다.

연제 발표로는 '검사문제의 해결 및 이상 증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9편의 짧은 강의를 주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평의원 및 학회원이 준비하였고, '검사 전 오류의 분류와 대책'에 대한 문헌 고찰을 본 학회 평의원인 김윤식(동강대), 성호중(을지대), 임용(동의대) 교수가 준비하였다.

장 협회장은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도관리 등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차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론으로 대표되는 지식류는 경험으로 대표되는 기술류와 결합해야만 생동감을 가지고 실용의 날개를 달고 현장을 누빈다"며, "어렵게 마련한 경험적 사례 공유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총 280여 명이 참여한 본 춘계학술대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일부 기술적 보완점을 개선하고, 협회와 학회가 공동 노력하여 더욱 원활하고 실시간 소통 활성화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대학교 학점은행제
임상병리학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1년 과정 모집

편리한 접근성 - 망월사역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장학혜택 - 다양한 장학혜택
역사성 - 50년의 역사와 전통



신한대학교

모집전공

전공명	정원	지원자격
임상병리학전공	80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예정자)

모집기간 2021.06.28.(월)~2021.08.13.(금)
등록기간 2021.08.18.(수)~2021.08.20.(금)
납부방법 계좌이체(가상계좌)
개강예정일 2021.09.01.(수).
전형방법 선착순모집
접수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문의
031)870-3813, 3816

* 모집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6월 중 <http://life.shinhan.ac.kr>에서 모집공고)

학점은행 모집과정

*표시는 신한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전공명 (1년과정)	정원	전공명(4년과정)	정원
임상병리학전공	80	*사회복지학전공	40
간호학전공	80	부동산학전공	40
방사선학전공	80	체육학전공	40
		사회복지현장실습	160

기타 모집과정

경기도 주관 사업 과정	정원	고용노동부사업	정원
귀농귀촌대학(토)	70	커피바리스타과정	15
조경가든대학(토)	40	직업상담사과정	15
시민정원사 (금)	30	조경기능사과정	15

임상병리사 활약 분야·국가 혁신 성장 핵심 인력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임 용
동국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1. 국가적·세계적 유망 산업, 바이오헬스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산업을 포괄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경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분야로, 세계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유망 산업이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중으로, 우리나라도 과학 기술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꾸준한 투자가 진행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자는 정부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2020년 24조원을 돌파했다. 주요 투자 대상인 3대 신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헬스다. 정책 추진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기준 국가경쟁력이 2017년부터 매년 2단계씩 상승해 2020년 2월에는 13위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규모, 신약 기술 수출액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 바이오의약품 특허 점유율 세계 3위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 품질책임자 법령 제정·개정 연혁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는 1997년부터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우수 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도입하여 권장 사항으로 운영하였다. 2004년 5월 30일 의료기기법 제정·시행 이후에는 국제적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약인 'ISO 13485'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의료기기 GMP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고용 의무가 없어 의료기기 제조·수입 과정상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4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과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품질책임자 준수 사항 등을 신설했다('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92호, 2014. 1. 28., 일부개정').

이후 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교육내용·시간, 품질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준비되었다. 이에 따라 제7조의4(품질책임자 자격 등)에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품질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2014. 9. 2.', '총리령 제1093호, 2014. 9. 2.,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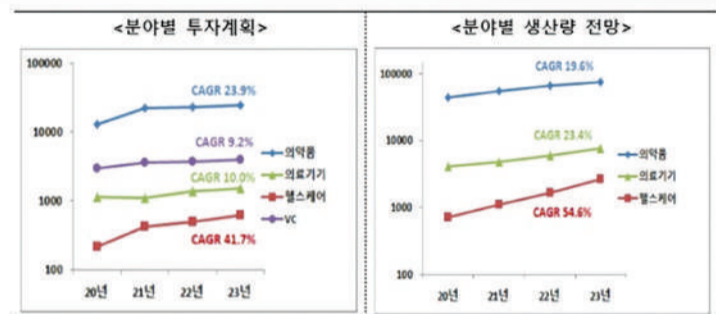
최근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취급과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수입업허가 및 제조허가·수입허가 등의 절차·방법,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절차 및 실시·관리기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준수사항,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해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더불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역시 일부 개정되었다('시행 2020. 5. 1.', '총리령 제1614호, 2020. 5. 1., 제정'). 최근 새롭게 신설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품질책임자)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책임자 자격기준이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3. 품질책임자 : 바이오헬스 산업 생산 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핵심 인력

정부는 3대 중점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2019년에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품질책임자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 과제 내용에서 생산 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핵심 인력이다.

정부는 2020년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발표에서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연평균 약 20% 생산 증가와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상했다. 또한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로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 정책과제 집중 육성 및 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4. 제언

보건의료계는 환경이 변화하고, 이해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품질책임자) 자격기준으로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병리사의 직무 수행 능력을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협회 차원에서 정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회원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국가 혁신 성장 핵심 인력임을 알고,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 분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초대석〉 임상병리사 출신 김영길 문경시 부시장
임상병리인으로서 국가적 재난 대응 더할 나위 없는 보람

코로나19 대응 주체 금지
후학들에게 보건소 등 감염병 관리 공직 도전 적극 권유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망감을 갖고 감염병 대책 등 보건 정책을 수행하면서 금지와 보람을 느낀 바탕에는 임상병리사 면허가 있었습니다.”

김영길 경북 문경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중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하느라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임상병리사 가족 모두 고생이 너무 많으며, 보건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코로나 진단, 치료 과정에서 세계적 재난에 대응하는 임상병리인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갖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의료기관 근무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임상병리사 면허가 있었기에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37년 넘는 세월 동안 공무를 수행하면서 임상병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마음속으로 늘 되새겨 왔으며, 후학들에게 적성이 맞고 의지가 있다면 전문인으로서 공직의 문을 두드리 보라고 자신있게 권했다.

임상병리사의 공직 도전에 대하여 김영길 부시장은 가능하다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여 현장 경험을 쌓고 나서 공무원 세계에 입문하는 게 감염병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큰 보탬이 된다고 조언했다.

적성과 부합하면 복리후생 등 근무 여건도 안정된 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방역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 부문

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83년 영양군 보건소 검사실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김 부시장은 TB(결핵균) 발견 염색체 검사 등을 시작으로 장염, 비브리오패혈증, 식중독, 응급의료, 고혈압·당뇨관리, 정신보건, 공중보건 관련 업무와, 감염병예방방법으로 바뀐 전염병 예방법 소관 감염병 관리 업무 등을 두루 섭렵했다. 30년 넘게 경북도에서 근무하며 보건소, 식품의약과, 보건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두루 거쳤으며 안동의료원 행정처장으로 의료행정을 맡기도 했다.

김 부시장은 임상병리사의 진로에 대하여 전국 250여 곳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꼽았다. 그는 감염병 관리 및 보건행정가로서 열정을 불태울 후학들에게 관심과 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길 문경시 부시장은 대구보건전문대 임상병리학과, 경북산업대 행정학과, 경북대 대학원 보건관리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7월 25일 경북 영양군 보건소 지방8급 상당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2018년 지방보건사무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식품의약과장을 거쳐 2019년 지방기술서기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2020년 지방기술서기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감염병관리과장을 역임했고, 2021년 문경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1992년 환경처장관, 1997년 내무부장관, 2008년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으며, 2020년엔 국민표창이 수여됐다.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발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 CHEMISTRY DxC 880I, DxC 800, AU Series
- IMMUNOASSAY DxI 800
-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 SERUM PROTEIN IMMAGE 800
-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 LAB Automation System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IMMUNOLOGY ELISA Reagent
- MAST ALLERGY
-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의료기사도 감염병 방역업무 투입 명문화 추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입·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투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근무한 의료인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한다.

조 의원은 “현재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이 있으며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부연 설명했다.

2021 (제8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2개 부문 수상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은 2021 (제8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경영혁신과 코로나19 대응 부문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에 선정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은 아태 지역의 기관과 기업, 전문인을 대상으로 경영 및 사회적 기여 부문의 탁월한 성과를 시상하는 비즈니스 대상 프로그램이다. 이번 어워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9개 나라에서 900여 편의 비즈니스 혁신성과가 출품됐고, 각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5월 3일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씨젠의료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방역 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인정받아 2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재단은 긴급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원, 부산경남검사센터, 대구경북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수행하며 K-방역의 최일선에서 값진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는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검사소를 이용한 검체 채취와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으로 카자흐스탄의 방역에 공헌하고 있다.

천종기 이사장은 “우리의 검사 역량은 곧 방역 체계의 핵심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외 의료인들을 도와 하루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1 (제8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시상 행사는 7월 14일 온라인에서 버추얼 시상식(Virtual Awards Ceremony)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 소개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석박사·임상병리사 등 약 900명의 임직원들이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전국의 병·의원이 요청한 임상진료 및 의학연구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운대 임상병리학과 '항공임상생리학 시뮬레이션 전문가 과정' 성료 임상생리학 시뮬레이션 전문 인재 배출 목적 지난해 장인호 협회장-한성욱 총장 인력양성 MOU 체결

지난해 장인호 협회장이 항공임상생리학 인력 양성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는 경북 구미시 경운대학교(총장 한성욱)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교내 8호관 항공임상생리학 시뮬레이션센터(KAPS)에서 '임상생리학 시뮬레이션 전문가 과정'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리학 분야 현장 전문가, 교수 및 재학생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올해로 3회째다.

교육 과정은 △뇌파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뇌혈류초음파 △신경근전도검사 △호흡기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청력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으로,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다양하게 특화된 전문가 과정을 진행했다.

학과는 활동 보고서와 포트폴리오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교육 과정을 좋은 평가로 이수한 학생에게 이수증을 수여했다.

임상병리학과 김혜정 학과장은 "임상병리학과는 임상생리학 분야 특성화 학과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임상생리학 시뮬레이션 전문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운대 임상병리학과는 지난해 2월 임상생리학 분야 최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뮬레이션 교육시설을 완비한 '항공임상생리학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구축했으며, 임상생리학 분야의 기초 연구 및 생리학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경운대학교는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등 항공 관련 주요 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운대 임상병리학과와 중점 교육, 연구 분야인 항공임상생리학은 고공 환경에 따

른 신체 생리 기능 변화를 진단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학과에서 실시하는 항공임상생리학 시뮬레이션 교육은 항공 분야 종사자를 위한 생리학적 검사 교육으로, 일명 '화이트 카드'라는 증명서가 발급되는 항공 신체검사에 모티프를 두고 시작됐다. 학생들은 학과에 구비된 다양한 임상생리학 장비를 활용해 업무 수행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학과는 이 교육을 통해 항공임상생리학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경운대 제공)

Brightek
(주)브라이텍



**'전 세계 점유율 압도적 1위'의
믿을 수 있는 염색성**

4분 30초의 초고속 염색 /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인텔리전트 클리닝 / 자동 시약량 모니터링 / Cytocentrifuge 기능 / 다양한 염색성 저장 및 편리한 사용 / 시간당 400매의 고속처리 / 폐수 용기 모니터링 / 염색데이터 보호 기능 / 추적관리기능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그람염색기 ■ 결핵염색기 ■ 혈액염색기 ■ 세포염색기(New)



Aerospray® Slide Stainer / Cytocentrifuge

수입원: (주)브라이텍
Tel: 02-948-8246 Fax: 02-948-7559 Email: cs.brightek@gmail.com Web: www.brightek.co.kr

협력사
(주)성현메디텍 / 대양약품 / 동방메디텍 / (주)동성메디칼 / 프라임메디텍 / 길렘 / (주)하메스

임상병리사가 말하는 주택 청약 상식

청약 통장에 꼭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장성호 공보부장

청약저축통장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이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종류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전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구 청약저축통장은 왜 매월 10만 원씩 납입해야 할까?'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청약 당첨자 선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청약가점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공공분양은 가점이 아닌 청약금 납입횟수와 예치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자연앤, 자연&), 각 지방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합니다. 민간분양은 삼성, 현대, 포스코건설 등 기업이 분양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공 분양과 달리 전용면적 제한이 없어 85㎡를 초과해도 무방하여 대형 평형 아파트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나라에서 하는 건 공공분양, 사업자나 개인이 하는 건 민간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청약가점 없이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연체 없이 꾸준히 월 납입금을 저축한 사람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민간분양은 청약가점제로, 무주택 기간, 분양 가족 수,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용면적 40㎡ 초과와 당첨자 선정 기준을 예로 들면 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그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②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③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④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⑤ 분양가족이 많은 사람 ⑥ 해당 공공분양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순입니다. 즉 당첨자 선발기준에서 최우선순위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청약저축 총액은 매월 납입금 10만 원씩만 인정해 줍니다. 납입금 총액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10만 원 이상 납입해도 매월(1회 기준) 10만 원씩만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A는 매월 5만 원씩 5년 납입하고, B는 매월 10만 원씩 5년 납입하

고, C는 두 달에 한 번씩 50만 원 납입했다면, A는 납입횟수 60회 예치금 300만 원, B는 납입횟수 60회 예치금 600만 원, C는 납입횟수 30회에 예치금 300만 원이 되어 청약당첨순서는 B, A, C 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공공분양아파트 입지가 좋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위례신도시의 자연앤센트럴자이, 광고신도시의 광고자연앤힐스테이트,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등은 모두 가점이 아닌 청약예치금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었습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청약통장이 필요해? 해약해도 되는 것 아니야?”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약통장은 무조건 해약하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은 집이 한 채 있거나 다주택자라도 살면서 언젠가는 무주택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택 경기에 따라 청약 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차곡차곡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저축해 놓으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상당한 금액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좋은 위치의 공공분양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청약저축 금액이 1,500~2,000만 원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안정권입니다. 만약 매월 10만 원씩 납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청약을 넣고 싶은 민영주택 아파트가 생겼을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로 납입하면 됩니다. 예치금이 충분한 이후라도 10만 원씩 계속 납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바랜 청약통장을 심폐소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 2개 이상의 통장을 가질 수 없기에 물려받은 통장이 있다면 원래 내 통장은 없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구를 소개합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부동산은 결국 땅의 가치이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



2021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천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 2021년 7월 24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61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획득면역의 성립과정

● **윤숙현 회원:** 병원에 근무하며 임상에서 쓰지만 가끔 시간이 지나 헷갈리는 용어들을 기억하기 쉽게 풀이해 놓은 점이 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임상병리사에게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해 병리협보에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용어들을 계속해서 협보를 통해 접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혐오 표현,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기에

● **김미지 회원:**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결정장애, 요린이, 헬린이 등의 표현들 속에 장애인,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꼭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단어를 고를 때부터 바른말 고운말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곧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작은 노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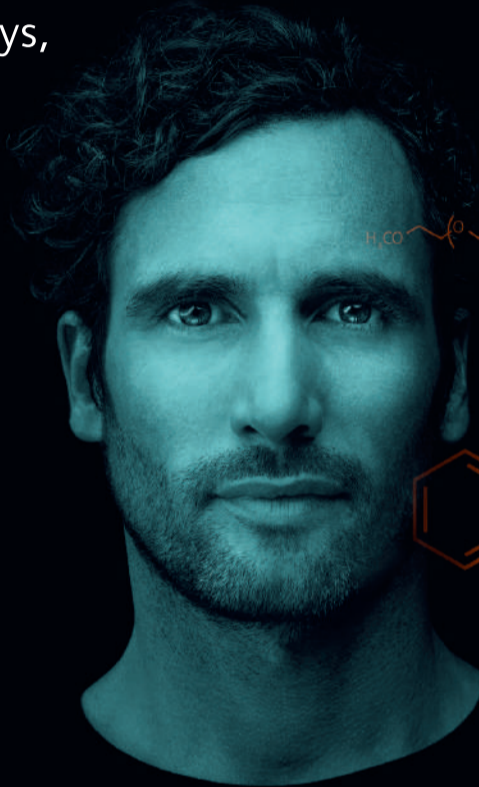
밤낮없이 헌신해주시는 보건 의료인에
 벅크만쿨터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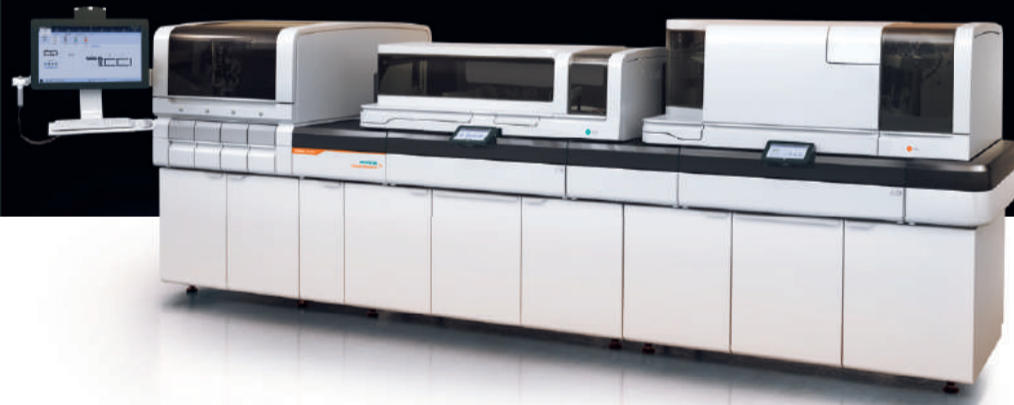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벅크만쿨터의 최신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atients are counting on your results

With high performing assays, the Atellica Solution will help you deliver them



HO0D05162003027894 ©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2019
Atellica is a trademark of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Product availability will vary by country.



Powered by Atellica® Solution

The Atellica Solution offers a broad, growing menu of chemistry and immunoassays—from a true High-Sensitivity Troponin I assay to a robust thyroid menu.

With revolutionary sample management, the Atellica Solution provides the diagnostics patients need with the turnaround time clinicians require.

See our comprehensive menu or ask your sales representative for more information.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대구경북검사센터



카자흐스탄알마티 검사센터(SKL)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검사 품질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구축



❖ ONE DAY 신속한 결과보고



❖ K-방역 최일선



❖ AI(인공지능) 등 최첨기술 도입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 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 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 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리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